

[심화실무수습기]

-2010 김앤장 법률사무소 심화실무수습 후기-

부족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

허 중 혁

-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년 재학 중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우등졸업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재무전공 수료
- 일본 로펌 바스코 다 가마 실무수습



들어가면서

날씨가 너무나 무더웠던 올해 여름, 7월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2주간 실무수습이 끝나는 마지막 날 일산 사법연수원. 민사변론과 형사변론에 대한 시연을 참관하는 일정을 끝으로, 법원에서의 2주간 교육을 같이 한 다른 학교 로스쿨 동료들과 아쉬운 이별을 하였다. 법원에서의 실무수습 기간 중에도 외부 기자들이 법원에 자주 찾아 와서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는지 자세히 묻는 경우가 있었고, 처음 실시하는 로스쿨생들의 법원실무수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간들을 몸소 경험하였다. 법원에서 뵈게 된 판사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본 입장에서 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업무의 실상을 공개하면서 외부에서는 볼 수 없는 사건의 기록을 교육 목적으로 가까이 제공한 법원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처음 실시되었던 법원 실무수습이니만큼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수습을 받았던 로스쿨 원생들 대부분은 법원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다. 매일 이어졌던 법정 방청과 약식재판, 그리고 판사님들 앞에서 직접 시연해야 했던 법정변론, 날마다 작성해서 제출해야 했던 보고서 등의 과제들 때문에 2주간은 학교에서의 생활보다 더

바쁘고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이틀간 사법연수원에서 이루어졌던 요건사실론 등의 실무강의와 마지막 날의 법정변론 시연까지, 법원 측은 로스쿨 수습생들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다. 2학년 2학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문서 작성 등의 실무과목에서 소송기록을 보고 답변서 등의 문건을 직접 작성함에 있어, 매일 수건의 소송기록을 볼 수 있게 해 주었던 법원에서의 실무수습만큼 도움이 되었던 교육은 없는 것 같다.

이러한 법원에서의 실무수습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실무수습이 바로 대형로펌에서의 실무수습이 아닌가 생각된다. 법원은 그 특성상 재판을 위한 소송업무가 전부일 수밖에 없지만, 대형로펌의 경우 소송업무(이하 '송무'라 한다) 외에 자문이 매우 중요한 사무영역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었다. 기업자문이 중요한 업무인 로펌의 현실상, 법학 실력만큼이나 외국어능력 및 직장경력이 중시되는 현상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2일부터 시작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심화실무수습에 운 좋게 선발되어 실무수습을 할 수 있었고, 8월27일로 4주에 걸친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나 자신은 물론 선발되었던 로스쿨 재학생들 전체에게 의미 있는 중요한 기회였고,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 어떤 곳이며 채용을 위한 로스쿨생들의 인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첫 시발점을 여는 장이라는 점에서, 수습이 끝나자마자 솔직한 심정으로 지난 여정들을 기록하고자 한다. 특히 필자 또한 예전에 궁금했던 로스쿨 재학생들의 로펌수습의 과정과 선발방법 등에 대해 알게 된 최대환을 기록하는 것이, 향후 로스쿨에 진학하실 분들이나 우리 로스쿨의 후배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실무수습 중에는 김앤장 측에 부탁을 드려 어렵게 로스쿨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변호사님과의 인터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고, 인터뷰를 통해서 김앤장 측의 로스쿨 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소중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서 법률신문에 기획기사로 실을 수도 있었다. 많은 유능한 로스쿨생들 중에 부족한 필자를 뽑아서 한 달 동안 챙겨 주신 김앤장 사무소 측과 멘토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하면서 조심스럽게 글을 시작해 본다.

로펌 실무수습의 유형

아마도 지금 로스쿨 1학년에 재학 중인 원생들이라면, 법원과 로펌의 실무수습에 어떻게 선발되는가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의 경우는 기준이 어느 정도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재학 중인 로스쿨에서의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50% 이내의 학생들로부터만 지원을 받았고, 사실상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선발하여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학년 여름에 1차 법원실무수습을 시작하고 그때 수습 받은 인원 중에서 평점이 좋았던 일부 인원은 2학년 겨울에 심화수습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다.

그에 비하여 대형 로펌들의 실무수습 선발의 기준은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일단 로스쿨별로 로펌들과의 협약에 의해 일정 인원은 방학 기간 중에 2주 기간 동안 연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협약에 의한 실무수습의 경우에는 학교 교수님들의 추천이 중요하고 학교에서 선정된 인원은 모두 해당 로펌에서의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연수는 2학년은 물론 1학년들도 받을 수 있고, 로스쿨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들 상당수가 한두 번의 기회는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

2주간의 일반적인 실무수습과 달리, 심화실무수습이란 대형 로펌들이 2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약간의 인원을 선발하여 4주의 기간 동안 교육을 시켜 보고 약간의 테스트를 거쳐 극소수의 인원을 채용하는 형식의 수습을 말한다. 일본 4대 로펌(西村あさひ法律事務所 니시무라 아사히, 森·濱田松本法律事務所 모리 하마다, アンダーソン・毛利・友常法律事務所 앤더슨 모리, 長島・大野・常松法律事務所 나가시마 오노)들의 경우도 우리의 심화실무수습과 유사한 summer program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나, 우리와 달리 일본 로스쿨 3학년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단 1주간의 수습만을 거쳐서 약간의 인원을 선발한다. 심화실무수습이나 summer program 에서 오퍼를 받았다 해서 백프로 채용되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나중에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 하면 오퍼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우리처럼 로스쿨 재학생이 1, 2학년일 때 수습을 받는 경우란 거의 없고 오로지 3학년들만 대형 로펌에서의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심화실무수습생들은 급료를 받지만, 일본 로펌들은 1주의 단기간임에도 하루에 1만엔 씩이나 지급하는 점이 흥미롭다.

우리 로펌 중에 올해 가장 먼저 심화실무수습을 실시한 곳은 법무법인 태평양이었고, 35명의 인원이 선발되어 한국과 중국 사무소에서 수습을 거친 후 약간의 인원이 오퍼를 받았다고 들었다. 태평양 심화수습을 직접 받지 않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김앤장 사무소에서 알게 된 로스쿨 원생들의 전언에 따르면 어학능력과 직장경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경우는 조금 늦게 심화수습을 실시했고, 선발된 인원 중의 일부는 태평양에서 선발된 인원과 겹치는 경우도 있었다. 아래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에서도 어학능력과 직장경력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것 같다. 로스쿨에 와서 새롭게 느꼈던 점 중의 하나가, 사법시험 체제에서와 달리 법학 실력만큼이나 외국어 능력이 중시된다는 것이었다. 심화실무수습에 선발되어 온 재학생들 상당수는 내티브급의 영어실력을 가진 경우가 많았고, 일본어나 중국어 등의 다른 외국어 능통자도 보였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준비로 직장경력도 별로 없는 내가 선발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운이 좋았던 때문이고, 정말 부끄럽지만 굳이 추측해 본다면 아마도 로스쿨에서의 성적과 일본 로펌에서의 경험 때문이 아닐까 싶다.

드디어 긴장되는 첫 주의 시작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2주간 실무수습이 끝나고 피로를 회복하느라 1주일을 보내고, 드디어 시작된 실무수습을 위해 첫 출근한 8월2일 오전 광화문 근처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모 빌딩 10층. 고급스럽고 깨끗한 실내에 단정한 용모의 스태프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찰과 서류들을 배부해 주시는 가운데, 삼삼오오 학생들이 모여 드는데 이미 법원에서 보아 낯익은 얼굴들도 있었다. 수습학생들 명단을 받아 보니 우리 로스쿨에서는 필자 한 명 뿐이라 당분간 혼자 생활해야 할 것 같았는데, 정작 시작하자마자 바로 옆에서 반갑게 인사해 오는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생들 덕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환영식장에 있을 수 있었다.

오전 10시부터 모 시니어 변호사님의 환영인사, 그 이후에는 다른 변호사님의 사무실 소개가 있었다. 김앤장 최고의 에이스라는 명성답게 유창한 말솜씨로 김앤장의 역사를 소개해 주셨고, 덕분에 김앤장 대표변호사님이 대한민국 최초의 jurist doctor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어진 점심시간에는 멘토 변호사님들과의 인사가 있었다. 처음 인사를 나눈 멘토 변호사님들은 김앤장의 드레스 코드에 딱 맞게 상하의 동일한 검정색 정장과 긴팔 와이셔츠에 출입패스를 다신 딱 그대로의 김앤장 변호사님들이셨다. 샌드위치로 간단히 하는 점심이었지만 매우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멘토 변호사님들 또한 초면에도 유머러스한 인상이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김앤장 사무소의 거의 모든 변호사님들은 언변의 달인이면서 유머에도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셨다.

점심식사 후 오후 1시40분부터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 그 다음 스태프들 따라서 우리들이 4주간 이용하게 될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는 사무실 배석과 컴퓨터와 자료 등 제반사항을 세팅하기 위해 분주했다. 개인별 공간에는 개인별 옷장과 짐기까지 갖추고 있을 정도로 준비시설이 매우 훌륭했고, 스

뺨들의 친절한 도움과 철저한 보안유지에 대한 고려 등 김앤장 사무소 측이 사전에 세심한 준비를 하셨음을 알 수 있었다. 환영을 겸한 첫 저녁식사는 건너편 고깃집에서 멘토 변호사님들과 같이 할 수 있었다. 밤 9시까지 술을 사 주시다가 다시 일하러 들어가시는 변호사님들을 보면서 역시 일이 많은 로펌은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조원들 간의 분위기는 화목했지만 선발된 각 대학 로스쿨생들 모두가 대단한 분들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기에 자못 긴장된 출발이었다.

둘째날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까지 교육장에서 리서치 강의를 수강하였다. 이 강의를 통해 리서치의 목적, 리서치를 잘 하기 위한 요령과 리서치 양식의 순서 등을 배울 수 있었는데 전달력 있는 강의라서 로펌의 실무 분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자문 업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법 제도 전반에 대한 리서치이므로, 리서치에 따른 정리 후 의뢰인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2시에는 멘토 변호사님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맛있는 식사와 따뜻한 조원들에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식사를 하고 들어오니 아웃룩에 팝업창이 뜨면서 다른 장소로 모이라는 메시지가 왔다. 그 장소로 가 보았더니, HR관련 변호사님께서 성희롱의 성립 여부와 회사 측의 조치에 관한 사례로 리서치 과제를 내어 주셨다.

셋째날도 주로 HR 과제를 위한 조원들의 리서치와 토론이 이어졌다. 로앤비에 접속하여 문헌을 검색하니 많은 유용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특히 강동욱 교수님의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논문 2편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점심식사 때 대학 선배이시면서 고등학교 동문 선배님의 친구 분을 멘토 변호사님으로 뵈게 되었는데,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 덕분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지금까지 만나 뵈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분들은 정말 언변에 있어 탁월하시고, 유머 감각들이 보통이 아니셨다.

다음 날 오후에는 Litigation 관련 미팅에 참석하였다. 즉시고발사건에 있어 고소불가분 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문제 1개와 주주 간 주식양도제한 약정에 관한 회사법 문제 1개, 그리고 차입매수에 관한 대법원 판례 2개의 자료가 과제로 주어졌다. 판례 사안에서 LBO(leveraged buy-out, 차입매수)가 문제되는 이유는, 기업인수자가 피인수기업을 매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기 자산이 아니라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이 차입매수를 한 기업경영자에 대해 배임죄를 인정한 사안과 부정한 사안이 둘 다 존재하고 있어서, 그 차이를 살펴보고 논의해 보는 것이 과제

중 하나였던 것이다.

첫 주 금요일, 리서치 발표를 하기 위한 자료 요약을 하면서 조원들과 약간의 토론도 하면서 오전을 보냈다. 12시에는 4층 회의실에서 Finance팀 변호사님의 배려로 일식 도시락을 먹으면서 여러 말씀을 들었고, 이후 합병에 관한 용어와 절차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어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강의내용은 예전에 경영대에서 배우던 M&A특강의 내용과 유사했기에 나중에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로펌의 업무 중 상당부분이 기업자문과 관련된 것이므로 경영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원래 2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던 HR 과제 발표가 5시로 연기되어, 좀 더 발표문을 수정할 수가 있었다.

일주일간 경험해 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그야말로 최고의 로펌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느낌을 들게 했다. 필자가 속한 조에는 필자 외에도 서울대, 고대 로스쿨 생이 같이 있었지만 같은 조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별로 배우는 분야는 전혀 달랐다. 각자의 관심분야와 경력에 따른 강의와 과제가 실시간으로 사내 인터넷인 아웃룩을 통해 전달되고, 시간에 맞추어 회의실에 가 보면, 다른 조 학생들이지만 동일한 분야에 경력과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미리 정해진 일정도 있지만 갑자기 과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실시간별로 아웃룩을 통해서 일정이 관리되고 과제 또한 아웃룩을 통해 주어지고 제출되는 최첨단의 시스템에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모든 시스템은 바쁜 일정 속에서 많은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로스쿨 채용담당 변호사님과의 인터뷰

이번 2010년 하계에는 개인별로 2주에서 4주간의 실무수습을 통해 필자 외에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쌓고 있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도 채용과 관련한 심화실무수습을 시작하여 많은 로스쿨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실시한 심화실무수습에 선발된 로스쿨 학생들의 면모나 학교별 인원에 대한 정보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는 심화수습 대상자로 서울대에서 16명, 고려대에서 6명, 연세대에서 5명, 성균관대에서 5명, 한양대에서 4명, 그 외 이화여대, 서강대, 외국어대, 중앙대에서 각 1명씩 선발하였다. 개인별 신상 정보의 한계상 모든 것은 밝힐 수 없지만, 다양한 학교에서 선발된 의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전문직과 금융감독원 등의 경력을 가진 화려한 스펙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

고 약간의 예외는 있으나, 대부분 학생들의 해당 로스쿨에서의 성적이 최상위권이었고 지난 가인법정변론에서의 우승팀과 준우승팀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법률신문 명예기자로서 학교별 숫자에 대해 미리 기사를 낸 바 있는데, 나중에 새로운 11분들은 이미 태평양 심화수업을 마치고 온 분들이었다.

수업을 받는 중간에 약 30분 동안 로스쿨 채용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과 인터뷰도 할 수 있었다. 변호사님의 말씀으론,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학벌과 나이에 의한 진입장벽의 제한이란 없다는 것. 특히 학생들이 나이가 어려야만 로펌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나이가 많아도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으면 충분히 로펌에 채용될 수 있으며, 이번 선발 또한 각 로스쿨 2년차 재학생들의 다양한 백그라운드와 경력 및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 변호사님은 또한, 로스쿨 학생들이 학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성적을 받기 쉬운 과목만을 골라 듣는 경향을 이미 알고 있으며 로펌 측은 GPA 그 자체가 아니라 실무에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들을 충실히 수강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목들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보겠다고 한다. 다만 변호사 시험 성적의 의미를 묻는 필자의 질문에 대해, 로스쿨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 시험은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갖기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신다고 하셨다. 로스쿨 학생들이 장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법학공부만큼이나 어학 등의 다른 스펙의 개발에 열중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어학은 하나의 장점에 불과하며 로스쿨 기간 중 개개인이 함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리걸 마인드를 형성해 나가는 일이라는 것. 만약 로스쿨 학생이 법학공부보다 어학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셨다.

약 30분 정도의 인터뷰 시간 동안 느낀 것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이 로스쿨 학생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채용방침 또한 매우 적극적이라는 사실이었다(변호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적극 강조해 달라고 하셨다). 이제 일주일 정도와 있지만 이전에 가지고 있던 막연한 우려와는 달리,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일이 무척 많으면서도 활발하게 돌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분위기의 로펌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 변호사 분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장 그대로의 교육과 그날 당일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을 통해 즉시 전달되는 공지 체계, 그리고 친절한 스태프 진과 세심한 준비 등에서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라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했다.

문화생활까지 배려해 주는 면모

다시 시작된 2주째는 업무에 있어 조금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틈이 나는 대로, 아는 변호사님들이나 우리 로스쿨의 교수님들께서 안부를 부탁하신 변호사님들을 찾아 비려고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중재를 주로 하시는 영국 변호사님도 뵈 수 있었고, 고교동문선배이신 여러 변호사님들을 만나 수년만의 회포도 풀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신 어느 변호사님께서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주셔서, 저녁도 사 주시면서 로펌 생활에 대한 고견을 들려 주셨다.

수요일에는 오전에 출근해서 송무 과제를 다 해서 제출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김앤장 측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영화를 감상하게 되었다. 한 달 간의 인턴 생활로 인하여 문화 생활도 하지 못 했고 조원들 간에 친목도 다지라는 의미로, 사무소 측에서 일부러 표를 예매해 주신 것이었다. 일로 바쁜 대형 로펌에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다니, 예상하지 못 한 즐거움이였다.

목요일 오전에 Corp팀 변호사님께서 M&A 관련 리서치 업무의 건 관련하여 메일을 주셨다. 바로 참석하겠다고 회신을 드렸으나 많은 학생의 지원으로 이미 마감되어 놀랐다. 이곳에 있는 로스쿨 인턴생들은 일에 대한 의욕이 정말 높은 탓에, 일을 주시는 족족 마감이 되어 버린다. 일이 많은 적든, 무엇이든 하고 배우려는 자세들을 정말 높이 살 만 한 것 같다.

금요일 오전에 Litigation 담당 변호사님께서 송무 과제와 관련하여 정답과 관련된 조언을 해 주셨고, 그에 보태어 변호사로서 채용되기 위해 준비할 만한 것들에 대한 조언도 해 주셔서 감사했다. 점심식사는 조원들이 바빠서 혼자서 회사 식당에서 먹었다. 김앤장 측에서는 인턴들에게도 회사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는데, 우리들은 "오늘 **식당밥 먹고 야근한다"라는 식으로 대화를 나누곤 했다. 8월에 있는 법원실무수습 등으로 인하여 오늘로 수습이 끝나는 학생들이 있어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나중에 보기로 약속하였는데, 벌써 2주가 끝났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느껴지는 하루였다.

같은 조인 고대 로스쿨생이 미국 로스쿨에서의 교환학생 건으로 2주로 실무수습을 마치고 출국한 자리에는, 태평양 심화인턴을 마친 연대 로스쿨생이 새롭게 합류하게 되었다. 휴가를 다녀오신 멘토 변호사님들과 함께 새로 합류한 연대 인턴과의 인사를 겸하여 점심식사를 할 수 있었다. 영어 네이티브였던 고대 로스쿨생 못지않게, 네이버 및 통신관련 경력이 출중한 연대 로스쿨생과 남은 2주를 갈

이 생활하게 된 것이다. 수습기간 동안 다른 학교 로스쿨생들과 친해질 기회가 많았고, 그런 교분은 실무를 배우는 것 이상으로 좋은 자산이 된 것 같다. 다른 학교의 소식이나 변호사 시험에 대한 전망, 로펌에의 채용 여부에 대한 많은 정보 교환을 할 수가 있었다.

일본 관련 업무와 세법 과제

그 동안 편하게 있다가 드디어 관심이 있었던 일본 관련 업무를 부여받았는데, 그 동안 한 번도 공부해 보지 않은 노동법 분야의 논문과 판결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일본 관련 업무를 부여받은 인턴은 필자를 포함하여 3사람인데, 일본에서의 체류 경험이 상당한 분들이셨다. 일본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변호사님께서 필자에게 노동법의 중요성을 언급하시면서, 시간이 있을 때 꼭 노동법을 공부할 것을 권하셨다(그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2학기 현재 집담적 근로관계법을 수강하고 있으며, 변호사님께서 일부러 권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음도 알게 되었다). 일본 판례 평석과 논문을 번역하는데 때때로 부딪히는 것이 야후 재팬에도 잘 나오지 않는 오래 된 표현들이었다.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는 표현들이 있을 때는, 스승이신 일본 로펌의 카타오카 변호사님께 메일을 드렸고 변호사님은 금방 답장을 해 주시곤 했다. 먼저 번역을 마친 '소위 위장도급과 목시적 노동계약의 성부' 부터 과제를 맡기신 변호사님께 보내 드리고, '징계처분의 대응절차와 법적 유의점' 은 양이 워낙 많아서 다음 날까지 번역을 계속했다. 일본법에서는 우리의 '도급'과 같은 법률 용어 대신에 '請負, うけおい' 란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관련 논문을 읽어 보면서, 위장도급에 있어서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여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일반적 판단기준인 '목시적 근로계약관계론' 은 일본의 판례 법리에서 유래한 것임도 알게 되었다. 그 동안 저작권법 쪽에 치중되어 일본법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노동법 분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유익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

이곳에 와서 업무적으로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ummary를 하는 일이었다. 의뢰인들은 많은 양의 기록을 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전문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의뢰인을 배려하기 위해 반드시 요약본도 첨부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날 저녁에는 우리 2조의 친목을 위해 멘토 변호사님께서 마련하신 술자리가 있었고, 정말 늦게까지 흥겨운 자리가 이어졌다.

8월19일 목요일 있었던 부동산 팀 변호사님들과의 점심식사에서, 수년 만에 옛 친구였던 변호사를 만나서 무척 반갑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대학시절 친

구었던 변호사의 액티브한 로펌 변호사로서의 생활 이야기도 들었지만, 김앤장 부동산 팀의 전반적인 안내도 들을 수 있었다. 계속 일본어 번역을 하다가 오후 4시에 Tax 관련 송무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Tax 팀 변호사님은 과거 기업재무 분야에서의 경험도 말씀해 주시는 등, 미팅은 매우 유익했다. 다음날까지는 Tax 팀 변호사님께서 내어 주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제를 하느라, 밤 11시까지 야근을 해야 했다. ‘명의신탁이 문제되는 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 주식배당,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을 경우, 각 경우에 따라 배정된 신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검토’ 및 ‘각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각 경우별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및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과제였다. 우리 로스쿨의 경우 1학년으로 7법이 끝나는 커리큘럼인지라 지난 1학기 로스쿨 수업에서 소득세법은 배운 바 있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직 배우지 않은 터여서 민법과 세법 책을 뒤적이면서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느덧 끝나 버린 실무수습

실무수습 마지막 주 첫날, 오전 11시에 외무부 출신의 미국변호사님으로부터 글로벌 에티켓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이곳에서 늘 느끼던 점이었지만, 강연하시는 여변호사님 또한 외모는 물론 언변에서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엘리트란 느낌을 주지 않을 수 없는 분이셨다. 배운 내용은 법원에서 들었던 에티켓과는 약간 다른 내용이었고, 김앤장 측에서 여러 모로 많은 교육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음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화요일 오전에는 전날 하려다 연기되었던 미팅을 통해서 재판매가격유지 관련 논문 번역 과제를 배부받았다. 오후 1시30분부터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님에게 공정거래실무와 관련하여 진술한 강의와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공정거래 팀의 모 변호사님께서 필자에게 따로 시간을 내어,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필자에게 상담을 해 주시기도 했다.

수요일 12시에는 경제부처 출신 시니어 변호사님께서 점심 약속이 없는 인턴들에게 직접 점심을 사 주셨다. 변호사님께서 예전 다른 기관에서 일하실 때의 경험과 인생의 덕담을 해 주시기도 했지만, 대학 동문 변호사와도 인사를 나눌 수 있었던 자리였다. 다음 날에는 원래 형사법정방청이 일정에 있었으나, 법원실무수습도 해 보았고 공정거래법상의 재판매가격 유지에 관한 논문 번역이 끝나지 않아서, 법정방청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번역과 요약 등 일을 마무리했다.

한 달 간의 실무수습 마지막 날, 재판매가격유지 관련 논문 번역 과제를 제출하고 나서 오후 3시에는 변호사님으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받았다. 마지막 날인 관계

로 오후 4시에는 일본 송무팀 변호사 분들께 인사를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카타오카 변호사님과 친분이 있으신 중견 변호사님께도 안부를 전할 수 있는 기회였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일본 송무팀은 매우 규모가 커서 건물의 한 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저녁에는 모든 심화인턴 로스쿨생들과 멘토 변호사님들, 그 외 스태프들이 모이는 송별회가 있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테라스에서의 식사는 할 수 없었지만, 은은한 음악이 흘러 나오는 감미로운 분위기 속에서 스테이크와 와인으로 저녁을 같이 할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는 다시 김앤장 사무소 근처로 이동하여 2차 회합이 있었고, 그 동안 배려해 주신 멘토 변호사님들과 이제는 정이 들어 버린 로스쿨 인턴생들이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들 술이 취해서 흥겨운 분위기로 명함을 주고 받으면서 나중에 다시 보자는 인사를 나누며 아쉬움을 뒤로 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토록 기대하고 그만큼 보람도 있었던 4주간의 심화실무수습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그간의 실무수습에 대한 소고

지금 다시 개강을 하고 학교 수업과 과제로 바쁜 와중에도, 지난 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의 수습기간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로스쿨 2학년이라는 위치가 이제는 공부와 취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처지가 된 탓일까? 벌써 태평양이나 울촌, 화우 등의 로펌에서 채용된 원생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본 동료들과 연락을 통해서 누가 어떤 스펙으로 선발되고 있는지도 대충 다 알게 되었다. 약간이나마 혹시 채용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한 달 동안의 수습에 임했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없다. 너무나 뛰어나고 성실한 로스쿨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자꾸 로스쿨 학벌만 본다는 식의 말을 하지만, 난 그들이 학벌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중재팀 변호사께서 국제중재업무 맡겼던 연대와 고대 로스쿨의 여학생들의 영어는 가히 네이티브급이었기에, 그들이 우리 소송기록을 법률영어로 바로바로 번역하여 초단기간에 제출하는 모습을 본 나로서는 그런 분들과 같이 일을 해 본 것만으로도 영광이라 생각한다. 회계사 시험 수석 및 의대 수석과 금감원 8년차의 회계사 경력을 자랑하는 동료 인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 자신이 그 동안 얼마나 자기 개발에 소홀했는가를 반성하게 되었다.

로스쿨 1기로서 일본 로펌 외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짧은 기간이나마 직접 경험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소감이 교차하는 까닭에 누군가 로스쿨 전반에 대해 물어 온다면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를 정도로 알고 싶은 게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 로스쿨 제도는 목적을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 로스쿨이 개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았다. 아직 그러한 시각이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지만, 2학년들의 수업으로 검찰실무 과목이 개설되어 현직 검사님들이 강의를 시작하시고 사법연수원에서 파견된 판사님들이 형사소송실무를 강의하시는 것이 현재의 실상이다. 작년만 해도 로스쿨 재학생 중에 대형 로펌에 채용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소수이긴 해도 엄연히 로스쿨 재학생 중에 대형 로펌에 채용되는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올해 겨울에는 더 많은 수의 재학생들이 채용될 것이란 정보가 나오고 있다. 사법연수원 졸업자 중에도 소수만이 갈 수 있다는 대형 로펌에서 로스쿨 재학생들을 받기 시작하는 현상은, 아직은 작은 변화지만 밝은 미래를 보여 주는 청신호가 아닌가 싶다.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바로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검찰의 현재 계획도 또 하나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로스쿨생들이 그런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제도로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위해

아직 우리 법조계는 로스쿨 출신의 법조인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지금도 송무 외에 기업자문 분야도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는 로펌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외국어 능력과 다양한 직장 경력을 가진 로스쿨 출신들의 진출분야도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동안 과거의 나를 비롯한 상당수의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판검사의 직업만을 생각하고 공부를 해 온 면이 있었다. 처음에 검사가 되고 싶어서 외국기업에 가지 않고 고시공부에 뛰어 들었던 나로서도, 로펌 변호사들의 실상을 목도하게 된 연후에 많은 생각에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대형 로펌에서는 재판을 위해 준비하고 전략을 짜는 변호사님들만큼이나 특수 분야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 업무를 하시는 한국 변호사 및 외국 변호사님들이 즐비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김앤장의 심화실무수습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내년에도 지금의 1학년들

이 나름대로의 스펙과 성적을 가지고 열심히 지원을 할 것이다. 물론 로스쿨에서 이루어지는 교수님들의 정규교육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법원과 로펌들의 실무수습도 중요한 교육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로스쿨생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 수습을 하면서 보게 된 일부 로스쿨생들은 로펌에의 채용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심지어 방학 기간의 전부-을 로펌의 실무수습에만 투입하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여러 실무수습을 거쳐 본 나는, 로스쿨생의 로펌 인턴에서 채용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로스쿨에서 온 많은 뛰어난 사람들과 경쟁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유능한 변호사 분들에게 일을 배우면서, 나 자신의 능력을 뒤돌아보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보람을 느낄 만하다고 생각한다. 채용이 되면 당연히 앞으로의 로스쿨 생활은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이를 보완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필자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 로펌에의 채용만을 의식하여 대형 로펌에서만 수습기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로스쿨에서의 법학공부와 함께 법원이나 검찰 등 다른 영역에서의 수습도 로스쿨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나의 짧은 생각이다.

이제 일 년여에 걸친 실무수습에 관한 긴 글을 마칠 때가 된 것 같다. 저번에 썼던 일본 로펌에서의 경험 또한 내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이었지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의 한 달도 매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일본 로펌에서 일본 관련 송무 영역을 목격하고 일본 변호사 분들과의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 소중한 수확이었다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는 소송업무 외에 폭넓은 기업자문 영역에 대한 현실을 직간접으로 목격하고 유능한 김앤장 변호사님들의 멘토를 받게 된 것이 소중한 수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지도해 주신 여러 변호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한 달 동안 도서 대출과 미팅 등을 도와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던 스태프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로스쿨 학업의 중반을 돈, 한 평범한 로스쿨생에게 온갖 배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앞으로도 아시아 최고의 로펌으로 계속 건승하시길 기원하며 부족한 글을 마친다.